

#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간 종단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형하<sup>1\*</sup>, 윤진미<sup>2</sup>, 한지윤<sup>3</sup>

<sup>1</sup>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2</sup>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sup>3</sup>학부과정

Verification of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ultural adaptation pattern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national ident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Hyoung-Ha Lee<sup>1\*</sup>, Jin-Mi Yun<sup>2</sup>, Ji-Yun Han<sup>3</sup>

<sup>1</sup>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sup>2</sup>Master's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sup>3</sup>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과 세 요인 간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검증하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MAPS의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추적한 2차-4차-6차-8차년도 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모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의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은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종단적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이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확장해 이중문화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데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Abstract In this study,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pplied to verify the longitudinal correlation between the three factors and the pattern of changes over time in the mother's cultural adaptation type,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national identity. For the study, longitudinal data from the 2nd, 4th, 6th, and 8th years of the MAPS tracked from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2nd grade of high school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four types of mother's acculturation were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longitudinal effect over time. The four types of mothers' cultural adaptation were analyzed to have a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youth.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ontinuous acculturation support program. In order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solidarity with the country, it was suggested that education to increase multicultural receptivity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 Cultural adaptation typ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ational identit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21-85.

\*Corresponding Author : Hyoung-Ha Lee(hhlee62@kwu.ac.kr)

Received July 26, 2021

Revised August 13,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가 인구구성과 사회구조 측면에서 빠르게 다문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아동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1]. 한국사회가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맞물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적응상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일정한 형태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었다[2-5].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의 발달상의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과 편견, 이중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및 정체감 혼란의 문제[6-9],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문제[9, 10], 이중문화수용과 다문화수용성 문제[11, 12], 국가정체성 문제[9, 12]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다문화수용성 및 국가정체성과의 연관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생각, 소속감, 애착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다[1, 12, 13]. 이러한 국가정체성은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이나 다문화수용성[11], 부모의 모국문화 방문[14] 등이 연구되었지만,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점은 가정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의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류하거나,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정도와 국가정체성 수준과의 인과관계 연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 요소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유동적인 국가정체성을 가질 것이란 점[12]도 비증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문화청소년의 상당수가 이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문화적응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자신들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추적한 8개년도의 종단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총 4개 시점 데이터를 활용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RCL: Auto 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상과 세 요인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규명하여 통합적 다문화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예측하고,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은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국가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적응 유형과 개념

Berry[15]는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양상은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개입하는 정도를 뜻하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4]. 즉,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assimilation)는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고 주류사회와 상호작용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통합(integration)은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주류사회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분리(separation)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 가치를 두고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전략이다. 소외(marginalization)는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주류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주변화 전략을 의미한다[5].

그러나 한국에 이주해 온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로 문화적응을 한국 문화적응과 모국 문화 유지의 2차원으로 구성한 하위문화의 측정값을 합산 혹은 평균을 지수화하여 측정하거나[16, 17], 한국 문화적응과 모국 문화 유지에 관한 2×2 행렬을 구성한 4개의 문화적응 유형 집단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현 외[5]는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개인차원과 양육차원을 예측요인으로 설정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동화/통합형, 분리형, 소외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화는 요인분석에 근거한 문화적응 유형을 분류하거나, 문화적응유형별 평균에 따른 집단간 차이 검증에 그쳐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의 인과적 관계 검증까지 확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18].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MAPS)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구성(각 유형별 3문항, 총 12문항)과 2차(초등학교 5학년)–4차(중학교 1학년)–6차(중학교 3학년)–8차(고등학교 2학년)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문항구성 4가지 문화적응 유형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4가지 문화적응 유형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과 국가정체성과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 2.2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과의 관계

Kymlicka[19]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에 대한 수용이 기존 사회의 유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연대감(sense of solidarity)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20]. 김동진[20]은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을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민적 자질이 며, 한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며,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자주 접하는 서로 다른 부모의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다문화수용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상의 어려움 간의 보호요인으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구[9, 21]가 주목된다. 여기서 국가정체성이란 “공통된 문화를 가진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 문화의 가치, 전통 및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에 대한 확신, 자부심, 수용, 긍정적인 평가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록 부모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문화청소년이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22, 23]. 또한, 국가정체성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한 국가에 통합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에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2, 24].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을 사회적 변화와 맞지 않는 개념으로 보는 비판적 의견도 있다[12, 25].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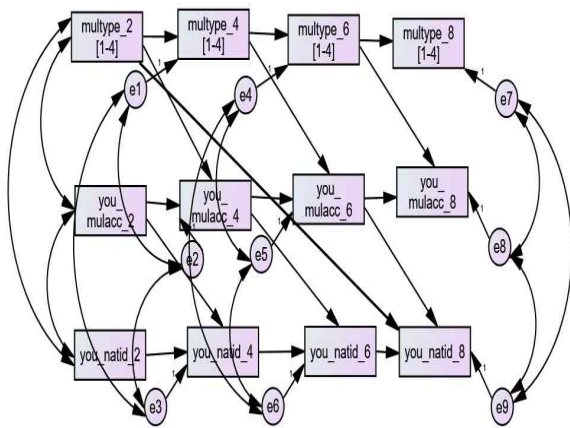
###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MAPS)를 활용하였다. MAPS는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종단 데이터이다. 연구대상의 연도별 표본 유지율은 1차년도(2011년) 확정된 1,625가구를 대상으로 2차년

도(2012년) 1,490가구(91.7%), 4차년도(2014년) 1,370가구(84.3%), 6차년도(2016년) 1,319가구(81.2%), 8차년도(2018년) 1,188가구(73.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2차년도, 2012년), 중학교 1학년(4차년도, 2014년), 중학교 3학년(6차년도, 2016년), 고등학교 2학년(8차년도, 2018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데이터를 병합한 후,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8차년도(2018년) 기준 전체 표본 수(1,635명)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를 가진 다문화 청소년 1,36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8차년도(2018년) 기준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49.1%(533명), 여학생 51.0%(555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83.3%(1,136명), 대학 졸업이상 16.7%(228명)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58.4%(797명), 대학 졸업이상 41.6%(567명)으로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일본 36.2%(494명), 필리핀 25.2%(344명), 중국(조선족) 19.6%(267명), 중국(한족, 기타민족) 7.5%(102명), 기타 5.2%(71명), 태국 3.7%(51명), 베트남 2.6%(35명) 순으로 나타났다.

### 3.2 연구모형



— 직접효과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어머니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어머니의 문

화유형(multype)은 4가지로 유형화(동화, 통합, 분리, 소외)하여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you\_mulacc)과 국가정체성(you\_natid)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 3.3 측정변수

#### 3.3.1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은 Barry[26]의 EAAM(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를 번안한 뒤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을 4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적응 4가지 하위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 척도는 2차-4차-6차-8차년도 각각 3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동화’ 유형의 신뢰도는 2차년도 .814, 4차년도 .831, 6차년도 .867, 8차년도 .862이었다. ‘통합’ 유형의 신뢰도는 2차년도 .749, 4차년도 .774, 6차년도 .777, 8차년도 .796이었다. ‘분리’ 유형의 신뢰도는 2차년도 .763, 4차년도 .796, 6차년도 .814, 8차년도 .801이었다. ‘소외’ 유형의 신뢰도는 2차년도 .810, 4차년도 .830, 6차년도 .857, 8차년도 .870이었다. 문화적응 유형의 하위요인명과 문항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other's cultural adaptation type scale

| type            | Variable name   |
|-----------------|---|
| assimilation    | I get along better with Koreans than with my native people.                         |
|                 | It's easier for me to tell my feelings to Koreans than to my native people.         |
|                 | I'm more comfortable with Koreans than with people from my home country.            |
| integration     | I have both Korean and native Korean friends.                                       |
|                 | I feel that both Koreans and natives value me.                                      |
|                 | I am very comfortable with anyone, Korean or native.                                |
| separation      | I prefer to go to gatherings where most of the people I gather are native.          |
|                 | I feel that my native people treat me more equally than Koreans.                    |
|                 | I feel more comfortable with my native people than with Koreans.                    |
| marginalization | There are times when I think that neither Korean nor native speakers understand me. |
|                 | I sometimes feel that neither Korean nor native people accept me.                   |
|                 | I often think that both Koreans and natives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me.     |

### 3.3.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양계민, 정진경, 강혜원[27]의 척도를 수정 보완한 이경상 외[28]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웃, 이성친구, 결혼까지도 수용하려는 태도” 5문항,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2차년도 .855, 4차년도 .868, 6차년도 .876, 8차년도 .886이었다.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문항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cale

| factor                      | Variable name  |
|-----------------------------|--|
|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I can accept peopl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s my neighbors.  |
|                             | I can accept young peopl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as my classmates  |
|                             | You can be your best friend with youth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
|                             | If you make friends with the opposite sex, you can make friends with people who have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an you. |
|                             | When I grow up, I can marry someone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

### 3.3.3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척도는 성한기[29]가 제작한 사회정체화척도를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척도는 “한국에 대한 생각과 소속감” 4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2차년도 .823, 4차년도 .867, 6차년도 .887, 8차년도 .902이었다. 국가정체성 척도의 문항 내용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National identity scale

| factor            | Variable name  |
|-------------------|--|
| national identity | When someone compliments Korea, I feel like I'm being praised.                                   |
|                   | I am interested in what other people think about Korea.  |
|                   | Korea's success is my success.   |
|                   | When someone speaks badly about Korea, I feel bad because it feels like they are swearing at me. |

##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8.0과 AMO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의 점검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에 대한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결측값은 EM대체법을 사용하고 이상치를 검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의 중단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0]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우도추정(FIML) 방식을 적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TLI, CFI, RMSEA를 함께 확인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패널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8차년도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등 주요 변인들의 평균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및 2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의 각각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Table 5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d variables

|   | cultural adaptation type |         |         |         | 5      | 6 |
|---|--------------------------|---------|---------|---------|--------|---|
|   | 1                        | 2       | 3       | 4       |        |   |
| 1 | 1                        |         |         |         |        |   |
| 2 | .548**                   | 1       |         |         |        |   |
| 3 | -.550**                  | -.342** | 1       |         |        |   |
| 4 | -.104**                  | -.436** | .331**  | 1       |        |   |
| 5 | .058*                    | .125**  | -.105** | -.175** | 1      |   |
| 6 | .069*                    | .079**  | -.017   | -.047   | .346** | 1 |

\*p<.05, \*\*p<.01, \*\*\*p<.001

1. assimilation 2. integration 3. separation 4. marginalization  
5. multicultural acceptability 6. national identity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유형은 통합모형과 정(+)적인 상관관계

( $r=.548, p<.01$ ), 분리모형과 소외모형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r=-.550, p<.01, r=-.104, p<.01$ )를 나타냈다. 통합모형은 분리모형과 소외모형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r=-.342, p<.01, r=-.436, p<.01$ )를 나타냈고, 분리모형은 소외모형과는 정(+ )적인 상관관계( $r=.331, p<.01$ )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국가정체성과 정(+ )적인 상관관계( $r=.346, p<.01$ )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 사이의 종단적 영향관계의 검증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 유형은 2.910(S.D.=.763)~2.969(S.D.=.762), 분리유형은 3.211(S.D.=.668)~3.266(S.D.=.721), 소외모형은 2.044(S.D.=.748)~2.242(S.D.=.749)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통합모형은 3.496(S.D.=.629)~3.601(S.D.=.652)로 비교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와 비교해 8차년도의 통합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2.927(S.D.=.573)~3.210(S.D.=503),

국가정체성은 2.706(S.D.=.651)~3.210(S.D.=590)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인 모두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4.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2차-4차-6차-8차년도의 잠재변인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변인들을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을 통해 재생된 자료와 실제 모집단 자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다( $\chi^2=317.030, df=51, p<.001$ ). 그런데  $\chi^2$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미세한 차이에도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Table 6. 참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GFI=.962, CFI=.904, RMSEA=.062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TLI=.876으로 다소 기준검증치에 미달하고 있지만, 기준 검증치인 .90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 Factor                      |              | Mean  | S.D. | Skew  | Kurtosis |
|-----------------------------|--------------|-------|------|-------|----------|
| assimilation                | multype2_1   | 2.966 | .774 | -.067 | .078     |
|                             | multype4_1   | 2.969 | .762 | .030  | .116     |
|                             | multype6_1   | 2.910 | .763 | .005  | .395     |
|                             | multype8_1   | 2.937 | .704 | .165  | .638     |
| integration                 | multype2_2   | 3.601 | .652 | -.475 | .525     |
|                             | multype4_2   | 3.591 | .627 | -.353 | .650     |
|                             | multype6_2   | 3.496 | .629 | -.314 | 1.026    |
|                             | multype8_2   | 3.510 | .609 | -.243 | .797     |
| separation                  | multype2_3   | 3.218 | .764 | -.269 | .334     |
|                             | multype4_3   | 3.261 | .747 | -.379 | .712     |
|                             | multype6_3   | 3.266 | .721 | -.394 | .633     |
|                             | multype8_3   | 3.211 | .668 | -.385 | .939     |
| marginalization             | multype2_4   | 2.044 | .748 | .335  | -.487    |
|                             | multype4_4   | 2.110 | .735 | .270  | -.364    |
|                             | multype6_4   | 2.242 | .749 | .143  | -.338    |
|                             | multype8_4   | 2.200 | .731 | .305  | .067     |
|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you_mulacc_2 | 2.927 | .573 | -.198 | .624     |
|                             | you_mulacc_4 | 3.075 | .528 | -.330 | 1.489    |
|                             | you_mulacc_6 | 3.147 | .515 | -.158 | .846     |
|                             | you_mulacc_8 | 3.210 | .503 | -.056 | .218     |
| national identity           | you_natid_2  | 2.706 | .651 | -.337 | .241     |
|                             | you_natid_4  | 2.778 | .629 | -.452 | .700     |
|                             | you_natid_6  | 2.818 | .610 | -.436 | .895     |
|                             | you_natid_8  | 2.893 | .590 | -.346 | 1.135    |

Table 6. Goodness-of-fit index of measurement model

| model               | $\chi^2$            | df | $\chi^2/df$ | GFI           | TLI  | CFI  | RESEA      |
|---------------------|---------------------|----|-------------|---------------|------|------|------------|
| measurement model   | 317.030             | 51 | 6.216       | .962          | .876 | .904 | .062       |
| acceptance criteria | $\chi^2/df$ 5 below |    |             | .90 more than |      |      | 0.80 below |

Table 7. Results of concentrated feasibility evalu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 Measurement variable | Estimate |       | S.E. | C.R.   | AVE  | CR   |
|-----------------------------|----------------------|----------|-------|------|--------|------|------|
|                             |                      | $\beta$  | B     |      |        |      |      |
| cultural adaptation         | multype2             | .497     | .062  | .062 | 12.981 | .874 | .965 |
|                             | multype4             | .663     | 1.102 | .073 | 14.989 |      |      |
|                             | multype6             | .645     | 1.120 | .075 | 14.902 |      |      |
|                             | multype8             | .592     | 1.000 |      |        |      |      |
| multicultural acceptability | you_mulacc_2         | .362     | .628  | .063 | 10.050 | .863 | .960 |
|                             | you_mulacc_4         | .521     | .829  | .063 | 13.087 |      |      |
|                             | you_mulacc_6         | .644     | 1.000 | .068 | 14.069 |      |      |
|                             | you_mulacc_8         | .633     | .954  |      |        |      |      |
| national identity           | you_natid_2          | .415     | .708  | .058 | 12.244 | .891 | .969 |
|                             | you_natid_4          | .621     | 1.022 | .061 | 16.636 |      |      |
|                             | you_natid_6          | .728     | 1.162 | .066 | 17.483 |      |      |
|                             | you_natid_8          | .649     | 1.000 |      |        |      |      |

변수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를 계산한 결과 Table 7.과 같이 3가지 요인에 대한 CR값의 일반적인 추천 기준치인 .70보다 높게 나타났고, AVE값의 경우도 기준치인 .50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 사이의 각 측정요인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호방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 모형은 모두 9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 모형 1: 어떠한 제약(constrained)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 모형 2: 모형 1에 더해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자기회귀계수(A)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3: 모형2에 더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자기회귀계수(B)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4: 모형3에 더해 ‘국가정체성’ 자기회귀계수(C)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5: 모형 4에 더해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D)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6: 모형 5에 더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서 ‘국가정체성’으로 가는 교차회귀계수(E)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7: 모형 6에 더해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간의 오차공분산(F)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8: 모형 7에 더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서 ‘국가정체성’ 간의 오차공분산(G)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9: 모형 8에 더해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서 ‘국가정체성’ 간의 오차공분산(H)에 대하여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우선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9개의 모형 가운데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 1부터 모형 9까지 순차적으로 두 개의 모형씩 비교하였다. 모형의 비교를 위해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후, CFI, TLI와 RMSEA 지수가 비교모형과 비교했을 때 차이(CFI $\pm$ 0.01, TLI $\pm$ 0.02, RMSEA $\pm$ 0.015)가 크지 않으면 동일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ppendix 참조]. TLI와 CFI가 0.9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 0.95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며, 그리고 RMSEA가 0.06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0.08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31]. 분석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에 따른 최종적인 모형적합도는 모두 모형9로 분석되었다.

Table 8. Model goodness-of-fit verification results

|                 | $\chi^2$ | df | TLI  | CFI  | RESEA (90% CI)   |
|-----------------|----------|----|------|------|------------------|
| assimilation    | 223.079  | 47 | .930 | .950 | .052 (.046~.059) |
| integration     | 211.165  | 47 | .929 | .950 | .051 (.044~.058) |
| separation      | 232.320  | 47 | .918 | .942 | .054 (.047~.061) |
| marginalization | 245.477  | 47 | .918 | .942 | .056 (.049~.063) |

#### 4.3.1 어머니의 문화적응 ‘동화’ 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 유형인 최종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9.와 같다.

첫째,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10\sim.551,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6\sim.326,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7\sim.387, p<.001$ ). 일반적으로 자기회귀계수는 안정성 계수로 해석되므로 이 검증 결과는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을 안정적

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5\sim.017, p>.05$ ).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 $\beta=.078\sim.079, p<.001$ ).

셋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적응유형은 8차년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016, p>.05$ ). 어머니의 ‘동화’ 적응유형에 대한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2.>와 같다.

Table 9. Estimate of path coefficients in final model - 'assimilation' type

| Path                        | $\beta$ | B     | S.E. | C.R.   |
|-----------------------------|---------|-------|------|--------|
| multype2_1 → multype4_1     | .519*** | .511  | .023 | 22.483 |
| multype4_1 → multype6_1     | .510*** | .511  | .023 | 22.483 |
| multype6_1 → multype8_1     | .551*** | .511  | .023 | 22.483 |
| you_mulacc_2 → you_mulacc_4 | .326*** | .305  | .014 | 21.686 |
| you_mulacc_4 → you_mulacc_6 | .316*** | .305  | .014 | 21.686 |
| you_mulacc_6 → you_mulacc_8 | .323*** | .305  | .014 | 21.686 |
| you_natid_2 → you_natid_4   | .367*** | .362  | .014 | 25.927 |
| you_natid_4 → you_natid_6   | .387*** | .362  | .014 | 25.927 |
| you_natid_6 → you_natid_8   | .380*** | .362  | .014 | 25.927 |
| multype2_1 → you_mulacc_4   | .015    | .018  | .016 | 1.078  |
| multype4_1 → you_mulacc_6   | .016    | .018  | .016 | 1.078  |
| multype6_1 → you_mulacc_8   | .017    | .018  | .016 | 1.078  |
| you_mulacc_2 → you_natid_4  | .078*** | .070  | .013 | 5.404  |
| you_mulacc_4 → you_natid_6  | .078*** | .070  | .013 | 5.404  |
| you_mulacc_6 → you_natid_8  | .079*** | .070  | .013 | 5.404  |
| multype2_1 → you_natid_8    | -.016   | -.016 | .023 | -7.03  |

\*\*\*p<.001

#### 4.3.2 어머니의 문화적응 ‘통합’ 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 유형인 최종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10.과 같다.

첫째,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26\sim.442,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3\sim.324,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8\sim.389, p<.001$ ). 일반적으로 자기회귀계수는 안정성 계수로 해석되므로 이 검증 결과는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42\sim.044, p<.01$ ).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 $\beta=.078\sim.079, p<.001$ ).

셋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적응유형은 8차년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027, p>.05$ ). 어머니의 ‘통합’ 적응유형에 대한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3.>과 같다.

Table 10. Estimate of path coefficients in final model - 'integration' type

| Path                        | $\beta$ | B     | S.E. | C.R.   |
|-----------------------------|---------|-------|------|--------|
| multype2_2 → multype4_2     | .442*** | .426  | .023 | 18.241 |
| multype4_2 → multype6_2     | .426*** | .426  | .023 | 18.241 |
| multype6_2 → multype8_2     | .438*** | .426  | .023 | 18.241 |
| you_mulacc_2 → you_mulacc_4 | .324*** | .302  | .014 | 21.494 |
| you_mulacc_4 → you_mulacc_6 | .313*** | .302  | .014 | 21.494 |
| you_mulacc_6 → you_mulacc_8 | .320*** | .302  | .014 | 21.494 |
| you_natid_2 → you_natid_4   | .368*** | .363  | .014 | 26.017 |
| you_natid_4 → you_natid_6   | .389*** | .363  | .014 | 26.017 |
| you_natid_6 → you_natid_8   | .382*** | .363  | .014 | 26.017 |
| multype2_1 → you_mulacc_4   | .042**  | .057  | .020 | 2.925  |
| multype4_1 → you_mulacc_6   | .042**  | .057  | .020 | 2.925  |
| multype6_1 → you_mulacc_8   | .044**  | .057  | .020 | 2.925  |
| you_mulacc_2 → you_natid_4  | .078*** | .070  | .013 | 5.382  |
| you_mulacc_4 → you_natid_6  | .078*** | .070  | .013 | 5.382  |
| you_mulacc_6 → you_natid_8  | .079*** | .070  | .013 | 5.382  |
| multype2_2 → you_natid_8    | -.027   | -.032 | .027 | -1.176 |

\*\*p<.01, \*\*\*p<.001

#### 4.3.3 어머니의 문화적응 ‘분리’ 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 유형인 최종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11.과 같다.

첫째,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46\sim.485,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5\sim.326,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67\sim.387, p<.001$ ). 일반적으로 자기회귀계수는 안정성 계수로 해석되므로 이 검증 결과는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25\sim-.026, p>.05$ ).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 $\beta=.079\sim.080, p<.001$ ).

셋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적응유형은 8차년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033, p>.05$ ). 어머니의 ‘분리’ 적응유형에 대한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4.>와 같다.

#### 4.3.4 어머니의 문화적응 ‘소외’ 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소외’ 유형인 최종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12.와 같다.

첫째,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74\sim.496,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Table 11. Estimate of path coefficients in final model – ‘separation’ type

| Path                        | $\beta$ | B     | S.E. | C.R.   |
|-----------------------------|---------|-------|------|--------|
| multype2_3 → multype4_3     | .460*** | .450  | .023 | 19.178 |
| multype4_3 → multype6_3     | .446*** | .450  | .023 | 19.178 |
| multype6_3 → multype8_3     | .485*** | .450  | .023 | 19.178 |
| you_mulacc_2 → you_mulacc_4 | .326*** | .305  | .014 | 21.687 |
| you_mulacc_4 → you_mulacc_6 | .315*** | .305  | .014 | 21.687 |
| you_mulacc_6 → you_mulacc_8 | .324*** | .305  | .014 | 21.687 |
| you_natid_2 → you_natid_4   | .367*** | .362  | .014 | 25.928 |
| you_natid_4 → you_natid_6   | .387*** | .362  | .014 | 25.928 |
| you_natid_6 → you_natid_8   | .380*** | .362  | .014 | 25.928 |
| multype2_1 → you_mulacc_4   | -.025   | -.029 | .017 | -1.728 |
| multype4_1 → you_mulacc_6   | -.025   | -.029 | .017 | -1.728 |
| multype6_1 → you_mulacc_8   | -.026   | -.029 | .017 | -1.728 |
| you_mulacc_2 → you_natid_4  | .079*** | .071  | .013 | 5.435  |
| you_mulacc_4 → you_natid_6  | .079*** | .071  | .013 | 5.435  |
| you_mulacc_6 → you_natid_8  | .080*** | .071  | .013 | 5.435  |
| multype2_3 → you_natid_8    | .033    | .033  | .023 | 1.422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0\sim.320, p<.001$ ). 4개의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즉 자기회귀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0\sim.368, p<.001$ ). 일반적으로 자기회귀계수는 안정성 계수로 해석되므로 이 검증 결과는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은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문화적응,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문화적응은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75\sim-.084, p<.001$ ). 4개 조사시점에 걸쳐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이후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교차지연계수)을 미쳤다( $\beta=.077\sim.078, p<.001$ ).

셋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적응유형은 8차년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eta=-.012, p>.05$ ). 어머니의 ‘소외’ 적응유형에 대한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및 구조회귀계수는 <Fig 5.>와 같다.

Table 12. Estimate of path coefficients in final model - 'marginalization' type

| Path                        | $\beta$  | B     | S.E. | C.R.   |
|-----------------------------|----------|-------|------|--------|
| multype2_4 → multype4_4     | .490***  | .483  | .023 | 20.849 |
| multype4_4 → multype6_4     | .474***  | .483  | .023 | 20.849 |
| multype6_4 → multype8_4     | .496***  | .483  | .023 | 20.849 |
| you_mulacc_2 → you_mulacc_4 | .320***  | .299  | .014 | 21.406 |
| you_mulacc_4 → you_mulacc_6 | .310***  | .299  | .014 | 21.406 |
| you_mulacc_6 → you_mulacc_8 | .321***  | .299  | .014 | 21.406 |
| you_natid_2 → you_natid_4   | .368***  | .363  | .014 | 25.999 |
| you_natid_4 → you_natid_6   | .310***  | .363  | .014 | 25.999 |
| you_natid_6 → you_natid_8   | .321***  | .363  | .014 | 25.999 |
| multype2_1 → you_mulacc_4   | -.075*** | -.090 | .017 | -5.406 |
| multype4_1 → you_mulacc_6   | -.077*** | -.090 | .017 | -5.406 |
| multype6_1 → you_mulacc_8   | -.084*** | -.090 | .017 | -5.406 |
| you_mulacc_2 → you_natid_4  | .077***  | .069  | .013 | 5.289  |
| you_mulacc_4 → you_natid_6  | .077***  | .069  | .013 | 5.289  |
| you_mulacc_6 → you_natid_8  | .078***  | .069  | .013 | 5.289  |
| multype2_4 → you_natid_8    | -.012    | -.012 | .024 | -.502  |

\*\*\*p<.001

#### 4.4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중단적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13.에 제시하였다.

첫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동화'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95% 신뢰구간(.0005~.0246)에서 정(+ )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 일수록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국가정체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통합'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95% 신뢰구간(.0010~.0310)에서 정(+ )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 일수록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국가정체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분리'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95% 신뢰구간(-.0318~- .0045)에서 부(-)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 일수록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낮춰 국가정체성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2차년도 시점의 어머니의 '소외'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95% 신뢰구간(-.0377~- .0112)에서 부(-)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소외' 일수록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낮춰 국가정체성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3.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analysis

|   | path                                       | indiret effect | S.E.. | Bias-corrected     |
|---|--|----------------|-------|--------------------|
| 1 | multype2_1 → you_mulacc_6<br>→ you_natid_8 | .0117          | .0061 | .0005<br>~ .0246   |
| 2 | multype2_2 → you_mulacc_6<br>→ you_natid_8 | .0150          | .0075 | .0010<br>~ .0310   |
| 3 | multype2_3 → you_mulacc_6<br>→ you_natid_8 | -.0170         | .0069 | -.0318<br>~ -.0045 |
| 4 | multype2_4 → you_mulacc_6<br>→ you_natid_8 | -.0233         | .0067 | -.0377<br>~ -.0112 |

1=assimilation type, 2=integration type, 3=separation type, 4=marginalization type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인 MAPS의 자료 중 2차년도(초등학교 5학년), 4차년도(중학교 1학년), 6차년도(중학교 3학년), 8차년도(고등학교 2학년) 총 4개 시점의 다문화청소년과 부모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상과 세 요인의 중단적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 모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의한 중단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모두는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에 유의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동화유형에서 영향력은 감소 후 증가 추세( $\beta=.519 \rightarrow \beta=.510 \rightarrow \beta=.551$ ), 통합유형에서 영향력은 감소 후 증가 추세( $\beta=.442 \rightarrow \beta=.426 \rightarrow \beta=.438$ ), 분리유형에서 영향력은 감소 후 증가 추세( $\beta=.460 \rightarrow \beta=.446 \rightarrow \beta=.485$ ), 소외유형에서 영향력은 감소 후 증가 추세( $\beta=.490 \rightarrow \beta=.474 \rightarrow \beta=.4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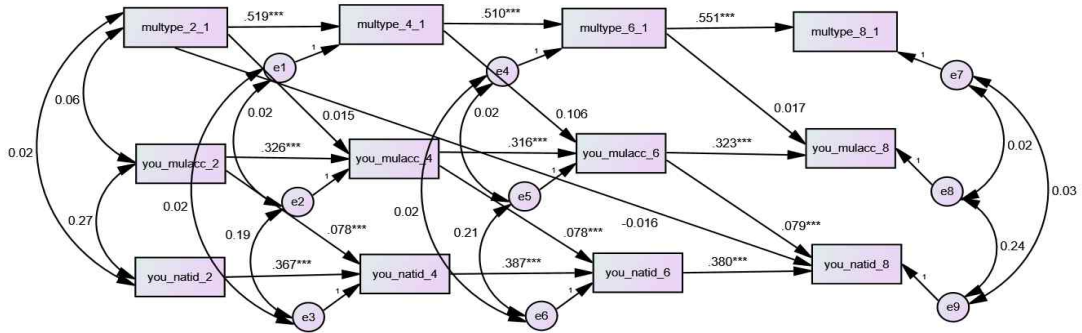


Fig. 2. 'assimilation' typ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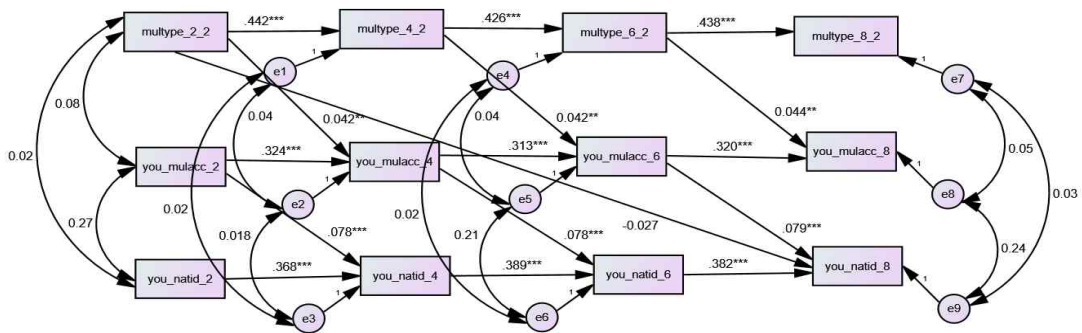


Fig. 3. 'integration' typ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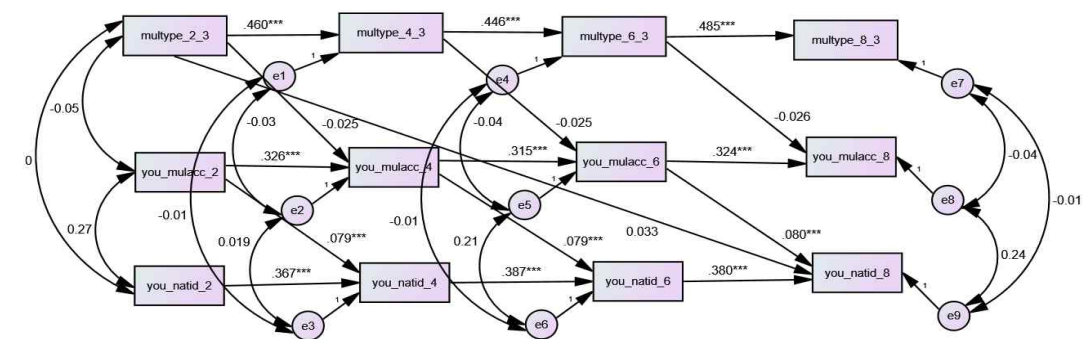


Fig. 4. 'separation' typ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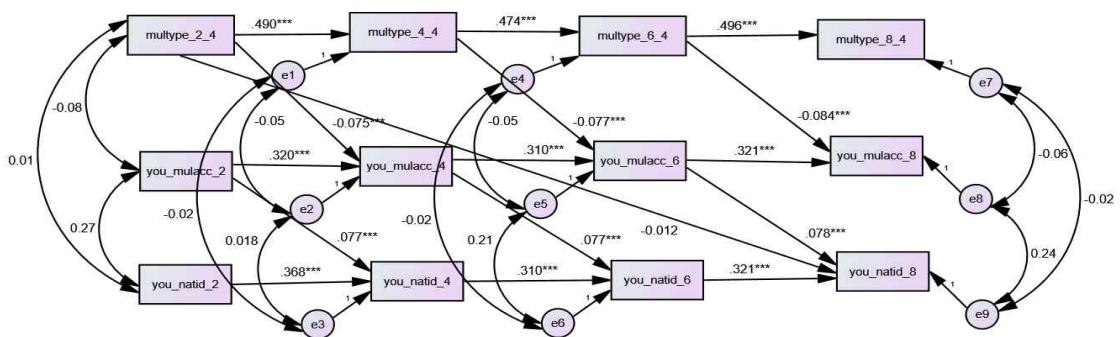


Fig. 5. 'marginalization' type model

를 나타냈다. 즉, 이전 시점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 모두는 이후 시점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의 영향력은 감소 후 증가 추세인 U자형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 시점에 어머니는 결혼이주기간이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도 어느 정도 고착화되면서 자신만의 문화적응 유형에 머무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결혼이주여성 중 상당수의 어머니들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적출신으로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에서 이주한 외국인이라는 낙인과 남편에게 의존적인 삶을 견뎌야 하는 가부장적인 중첩된 차별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어머니 출신문화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고 한국문화에 동화하게 만드는 동화유형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한 전자배[3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통합' 유형에서는 정(+)적 영향( $\beta=.042\sim.044, p<.01$ ), '소외' 유형에서는 부(-)적인 영향( $\beta=-.075\sim.084, p<.001$ )을 나타냈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지만, 한국사회와 단절된 분리형 소외 유형의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에게 낮은 양육효능감이 나타난다는 장용희[33]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형에 가까울수록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반면,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소외형에 가까울수록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용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된다는 점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후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정(+)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 $\beta=.078 \rightarrow \beta=.078 \rightarrow \beta=.080$ )를 보여 주었다. 또한, 4개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의 평균(2.706  $\rightarrow$  2.778  $\rightarrow$  2.818  $\rightarrow$  2.893)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동태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이희정[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넷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동화, 통합, 분리, 소외)은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중단적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문화적응 4가지 유형은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는 유의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와 '통합'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정(+)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전시점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와 '통합' 유형일수록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국가정체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와 '소외'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수용성은 부(-)적인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전시점의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와 '소외' 유형일수록 이후 시점의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낮춰 국가정체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 혹은 '소외' 유형보다는 '통합' 혹은 '동화' 유형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이현 외의 연구 [5]에서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통합 유형에서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보여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동반에 있어 필수조건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류하는 예측요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국가정체성의 중단적 효과 검증을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문화적응 유형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특히,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분리' 혹은 '소외' 유형의 경우는 그 원인이 초기 문화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적절성 문제인지, 가족문화의 차이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다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확장해 이중문화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데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들 다문화청소년이 멀지 않아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사회의 개방적인 태도와 다문화사회를 함께 맞이하는 성숙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와 ‘분리’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중단적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유형의 문화적응과 국가정체성 사이에서 다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지만, 그 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또래와 교사,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등의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과의 연관성을 규명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H. J. Lee. (2018). An Analysis on the Process of Identity Transforma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Korea's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2(1), 77-115. DOI : 10.21562/kjs.2018.02.52.1.77
- [2] J. Y. Lee, G. H. Chung & J. P. Yoo. (2014). Predictors of Acculturation Types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3), 1-15.
- [3] E. M. Lim, S. J. Cheong & S. J. Lee. (2010).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s Cultural Adaptation Types and Acculturation Stres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3), 957-973. DOI : 10.15703/kjc.11.3.201009.957
- [4] H. J. Choi. (2009).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163-194. DOI : 10.20970/kasw.2009.61.1.007
- [5] H. Lee & K. W. Lee. (2021). A Study on Acculturation Profiles and Predictor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Random Forest.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0(2), 171-193. <https://doi.org/10.30974/kaice.2021.10.2.7>
- [6] S. H. Oh. (2016). The Study on the Eco-systemic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Depress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6, 1-27. UCI : G704-001921.2016.56.004
- [7] S. H. Yu. (2020).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on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14(1), 155-192.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899600
- [8] S. H. Cho, S. O. Park. (2016).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Adolescent's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8(2), 81-92.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518>
- [9] J. S. Lee & J. M. Kim. (2021).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Youth Children's Depression: The Controlled Mediated Effect of National Identity and Peer Relationship through Social Inhibition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2), 59-88. DOI : 10.21509/KJYS.2021.02.28.2.59
- [10] H. H. Lee.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on learning adapta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5(4), 197-205. DOI : 10.9708/jksoci.2020.25.04.197
- [11] S. Y. Han, M. S. Yang & Y. H. Park. (2020). Exploring the longitudinal chang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by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their bicultural accepta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3), 663-689. DOI : 10.24159/joec.2020.26.3.663
- [12] S. K. Lee. (2020). Classification of latent classes by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exploration of predictors, acculturative stres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3(3), 113-139. DOI : 10.14328/MES.2020.9.30.113
- [13] E. T. Morse. (2009). *Who counts as an Americ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750717>
- [14] N. H. Jang. (2016). Developing Bicultural Identity among the Children Born to the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s of Korean Husbands and Filipina Wives. *Theology of Mission*, 42, 217-247. DOI : 10.14493/ksoms.2016.2.217
- [15] J. W.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https://doi.org/10.1080/026999497378467>
- [16] Y. Kim. (2011). The Effect of Policy Support on Accultura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5(4), 217-247. UCI : G704-000863.2011.15.4.002
- [17] J. H. Song & T. Y. Lee. (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Acculturation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Social Welfare Policy*, 41(1), 241-266. DOI : 10.15855/swp.2014.41.1.241

- [18] H. R. Lee & J. W. Bahk. (2018).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Analysis of Changes i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7(4), 329-358.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1746
- [19] W.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2307/2082902>
- [20] D. J. Kim. (2019). The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 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51(1), 1-26.  
DOI : 10.35557/trce.51.1.201903.001
- [21] Y. K. Woo & E. H. Kim. (2016). The impact of bilingual competence on resilience and cultural ident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9(3), 63-81.  
DOI : 10.14328/MES.2016.9.30.63
- [22] B. Ryou, Y. Choi, J. S. Hong & K. Kim. (2019). Cultural orient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21(4), 767-777.  
DOI: 10.1007/s10903-018-0808-4
- [23] E. A. Kim & M. Y. Bhe. (2016).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155-176.  
DOI : 10.21509/KJYS.2016.09.23.9.155
- [24] Y. M. Kim. (2014). A Case Study on the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Global Studies Education*, 6(1), 61-88.  
UCI : G704-SER000001654.2014.6.1.002
- [25] M. J. Kim. (2018). A Study on Cultur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Diaspora Studies*, 9(2), 197-231.  
UCI : G704-SER000011618.2015.9.2.001
- [26] D. T. Barry.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 193-197.  
DOI: 10.1023/A:1012227611547
- [27] K. M. Yang, J. K. Jung & H. W. Kang. (2008). *A study on ways to vitalize youth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8] K. S. Lee et al. (2011).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business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9] H. G. Seong. (2001).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Identific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3), 33-48.
- [30]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ttps://doi.org/10.1111/jedm.12050>
- [31] R. B. Kline.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th ed.)*. NY: Guilford Press.  
DOI:10.1177/1049731509336986
- [32] J. B. Chun. (2018).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ttitude of par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self-esteem of their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3), 121-146.  
DOI : 10.14328/MES.2018.9.30.121
- [33] Y. H. Chang.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ment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Its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development Assets, social support,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esilience Variabl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 809-830.  
DOI : 10.22251/jlcci.2018.18.2.809

## 이형하(Hyoung-Ha Lee)

[장학원]



- 2000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 다문화 분야

· E-Mail : [hhlee62@kwu.ac.kr](mailto:hhlee62@kwu.ac.kr)

## 윤진미(Jin-Mi Yun)

[학생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영유아복지, 다문화 분야
- E-Mail : [jinmi9111@hanmail.net](mailto:jinmi9111@hanmail.net)

## 한지윤(Ji-Yun Han)

[학생회원]



- 201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부생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지역복지
- E-Mail : [klp7742@daum.net](mailto:klp7742@daum.net)

[Appendix]

1. Model goodness-of-fit verification results- 'assimilation' type

|        | $\chi^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Delta$ df | $\Delta$ TLI | $\Delta$ CFI | $\Delta$ RMSEA |
|--------|----------|----|------|------|-------|----------------|-------------|--------------|--------------|----------------|
| model1 | 141.622  | 31 | .933 | .969 | .051  |                |             |              |              |                |
| model2 | 143.883  | 33 | .937 | .969 | .050  | 2.261          | 2           | .004         | .000         | -.001          |
| model3 | 171.082  | 35 | .927 | .961 | .053  | 27.199         | 2           | -.010        | -.008        | .003           |
| model4 | 198.390  | 37 | .918 | .954 | .057  | 27.308         | 2           | -.009        | -.007        | .003           |
| model5 | 202.400  | 39 | .922 | .954 | .055  | 4.010          | 2           | .004         | .000         | -.002          |
| model6 | 203.389  | 41 | .926 | .954 | .054  | 0.989          | 2           | .004         | .000         | -.001          |
| model7 | 211.560  | 43 | .927 | .952 | .054  | 8.171          | 2           | .001         | -.002        | .000           |
| model8 | 215.079  | 45 | .929 | .952 | .053  | 3.519          | 2           | .002         | .000         | -.001          |
| model9 | 223.079  | 47 | .930 | .950 | .052  | 8.000          | 2           | .001         | -.002        | -.001          |

2. Model goodness-of-fit verification results- 'integration' type

|        | $\chi^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Delta$ df | $\Delta$ TLI | $\Delta$ CFI | $\Delta$ RMSEA |
|--------|----------|----|------|------|-------|----------------|-------------|--------------|--------------|----------------|
| model1 | 143.472  | 31 | .926 | .965 | .052  |                |             |              |              |                |
| model2 | 148.939  | 33 | .929 | .964 | .051  | 5.467          | 2           | .003         | -.001        | -.001          |
| model3 | 176.466  | 35 | .918 | .956 | .054  | 27.527         | 2           | -.011        | -.008        | .003           |
| model4 | 203.601  | 37 | .909 | .949 | .057  | 27.135         | 2           | -.009        | -.007        | .003           |
| model5 | 205.084  | 39 | .914 | .949 | .056  | 1.483          | 2           | .005         | .000         | -.001          |
| model6 | 206.164  | 41 | .918 | .949 | .054  | 1.080          | 2           | .004         | .000         | -.002          |
| model7 | 207.626  | 43 | .922 | .949 | .053  | 1.472          | 2           | .004         | .000         | -.001          |
| model8 | 210.956  | 45 | .925 | .949 | .052  | 3.330          | 2           | .003         | .000         | -.001          |
| model9 | 211.165  | 47 | .929 | .950 | .051  | 0.209          | 2           | .004         | .001         | -.001          |

3. Model goodness-of-fit verification results- 'separation' type

|        | $\chi^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Delta$ df | $\Delta$ TLI | $\Delta$ CFI | $\Delta$ RMSEA |
|--------|----------|----|------|------|-------|----------------|-------------|--------------|--------------|----------------|
| model1 | 147.952  | 31 | .922 | .963 | .053  |                |             |              |              |                |
| model2 | 159.032  | 33 | .921 | .960 | .053  | 11.080         | 2           | -.001        | -.003        | .000           |
| model3 | 184.936  | 35 | .911 | .953 | .056  | 25.904         | 2           | .010         | -.007        | .003           |
| model4 | 212.043  | 37 | .902 | .945 | .059  | 27.107         | 2           | -.009        | -.008        | .003           |
| model5 | 214.062  | 39 | .907 | .945 | .057  | 2.019          | 2           | .005         | .000         | -.002          |
| model6 | 215.192  | 41 | .912 | .945 | .056  | 1.130          | 2           | .005         | .000         | -.001          |
| model7 | 218.334  | 43 | .916 | .945 | .055  | 3.142          | 2           | .004         | .000         | -.001          |
| model8 | 221.237  | 45 | .919 | .945 | .054  | 2.903          | 2           | .003         | .000         | -.001          |
| model9 | 232.320  | 47 | .918 | .942 | .054  | 11.083         | 2           | -.001        | -.003        | .000           |

4. Model goodness-of-fit verification results - 'marginalization' type

|        | $\chi^2$ | df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Delta$ df | $\Delta$ TLI | $\Delta$ CFI | $\Delta$ RMSEA |
|--------|----------|----|------|------|-------|----------------|-------------|--------------|--------------|----------------|
| model1 | 164.878  | 31 | .916 | .961 | .056  |                |             |              |              |                |
| model2 | 167.116  | 33 | .921 | .961 | .055  | 2.238          | 2           | .005         | .000         | -.001          |
| model3 | 191.929  | 35 | .913 | .954 | .057  | 24.813         | 2           | -.008        | -.007        | .002           |
| model4 | 218.291  | 37 | .905 | .947 | .060  | 26.362         | 2           | -.008        | -.007        | .003           |
| model5 | 228.500  | 39 | .906 | .944 | .060  | 10.209         | 2           | .001         | -.003        | .000           |
| model6 | 229.465  | 41 | .911 | .945 | .058  | 0.965          | 2           | .005         | .001         | -.002          |
| model7 | 230.759  | 43 | .915 | .945 | .057  | 1.294          | 2           | .004         | .000         | -.001          |
| model8 | 233.881  | 45 | .919 | .944 | .055  | 3.122          | 2           | .004         | -.001        | -.002          |
| model9 | 245.477  | 47 | .918 | .942 | .056  | 11.596         | 2           | -.001        | -.002        | .001           |